

# 한국판 대학생용 Bergan 페이스북 중독 척도 타당화 연구

신성만      김재영      라영안<sup>†</sup>  
한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중독 수준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ndreassen, Torsheim, Brunborg와 Pallesen(2012)이 제작한 Bergan 페이스북 중독척도(Berga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의 18문항을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먼저 번안된 페이스북 중독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18개의 예비문항 모두 척도 구성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다른 328명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페이스북 중독 예비척도에서 원척도와 동일한 현저성, 내성, 기분변화, 재발, 금단, 갈등의 6요인 모형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 척도,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신경성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또한 적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대학생 중독, 인터넷 중독, SNS 중독, 페이스북 중독, 타당화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라영안,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Tel: 054-260-1225, E-mail: yar4466@handong.edu

관계중독이란 관계나 사람에게 집착하여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상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김지연, 심혜원, 2016).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교류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 자원과 유대감을 제공하여 인간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지만(오윤경, 2011), 최근 우리 사회에 대인관계 능력을 손상시키는 다양한 장애와 함께 관계중독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동시에 어려운 일임은 비단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것 뿐 아니라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통계청(2015)의 2015년 국제통계연감 자료에 의하면, OECD 삶의 질 조사에서 한국의 인적 네트워크 수준은 72점으로 OECD 평균 88점에 비해 매우 낮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네트워크 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교류에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대두를 들 수 있다(김희연, 오주현, 2012). SNS의 사용은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대인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Kuss & Griffith,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SNS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SNS를 통해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람들은 SNS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물리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김희연, 오주현, 2012). 즉,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누구와도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SNS를 통해 가상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인간관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며 그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Andreassen & Pallesen, 2014). 또한 SNS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은 온라인 게임, 영화 시청, 사진 및 비디오 공유, 메시지 전송, 뉴스와 신문 기사 등의 링크를 통한 정보 전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Griffiths, 2010b; Griffiths & Parke, 2010; Kuss & Griffiths, 2011). SNS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사용자들은 타인과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자신을 브랜드 가치화할 수 있다(서거, 2012). 관심 있는 특정 분야나 주제와 관련한 진정성 있고 정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온라인상에 꾸준히 제공하여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타인이 자기 자신과 특정 주제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인해 자신을 브랜드 가치화시킬 수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SNS를 사용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 되어 왔다. 사람들은 SNS라는 매체를 통해 가상의 공간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관계보다 간접적이고 피상적인 형

태가 된다.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SNS 상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몰입하며(김형수, 2014), SNS 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관심과 반응에 반응하는 식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현실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따라서 SNS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대인관계 문제를 회피하고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타인의 반응에 집착하게 되는 양극적인 관계적 특징을 동시에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만족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SNS의 사용은 2010년 이후 국내에서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a)에 따르면 2011년 16.8%에 그쳤던 SNS 이용률은 2013년 31.3%에서 2015년 43.1%로 조사되어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 20대의 SNS 이용률은 74.4%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b) 이러한 결과는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과 친밀감을 획득하는 성인 초기 발달적 과업을 가진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SNS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며(박순주, 권민아, 백민주, 한나라, 2014), 특히 대인관계망을 확충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돕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은영, 최윤영, 최민영, 박성화, 서영석, 2014). 이와 같이 페이스북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과도한 페이스북 사용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으며, 최근 대학생을 중심으로 페이스북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Kuss & Griffiths, 2011).

페이스북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SNS의 한 종류지만 보편적인 SNS와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먼저, 페이스북은 오프라인 상의 관계를 보완하는 기존 SNS의 일차적 기능을 넘어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했듯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Griffiths, 2010a), 도박에 참여하기도 하고(Griffiths, 2010b; Griffiths & Parke, 2010), 영상이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사진을 교환하고 프로필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Kuss & Griffiths, 2011). 이는 보편적인 SNS와 달리 페이스북 과사용의 원인이 대인관계적 요인을 포함하여 온라인 게임, 도박 등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페이스북은 전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가장 인기있고 대중적인 SNS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페이스북과 SNS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Andreassen & Pallesen, 2013).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며 페이스북 중독의 양상이 기타 SNS들과 차별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 독립적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페이스북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중독적 사용’의 특징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독적 사용을 이끄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NS 및 페이스북 중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Hormes, Kearns, & Timko, 2014). 즉, 일상생활에서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쉽게 경험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페이스북에 몰입하게 된다고 연구자들은 보고하였다(Hormes et al., 2014; Ryan, Chester, Reece, & Xeneos, 2014).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페이스북 접속 빈도와 사용시간, 게시물 업로드 횟수, 페이스북 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틈 나는 대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소식을 살피고 가상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신영, 2015; 황유선, 2015). Andreassen (2015)에 따르면 과도한 페이스북의 사용은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면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생활 장면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기능과 생산성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의 경우 페이스북의 과도한 몰입이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도를 낮추며,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유현숙, 2012; Kuss & Griffiths, 2011). 더불어 페이스북의 중독적 사용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의사소통 등의 사회적 목적이 주를 이루었고, 정보탐색, 자기 확인 등을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현숙, 2012). 이러한 페이스북의 중독적 사용 동기는 SNS나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페이스북 중독과 관련된 변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많은 선행연구들은(서보경, 2014; Hormes et al., 2016; Kittinger, Correia, & Irons, 2012; Yu, Hsu, Yu, & Hsu, 2012) 페이스북의 과다사용이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성격적,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격 5요인 중 신경증과 외향성이 페이스북 중독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성실성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박미향, 김정숙, 함경애, 2014; 서거, 2012). 이는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며, 신경증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지지와 확신을 얻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는 이전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Andreassen et al., 2012). 그 외 SNS 및 페이스북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심리적 요인에는 우울, 불안, 자존감, 자기애적 성향, 대인관계 민감성, 자아 정체감, 외로움, 자기효능감 등이 있었다(고은영 외, 2014; 김선미, 서경현, 2015; 서원진, 김미리혜, 김정호, Elbesutani, 조인성, 2015; 이상호, 고아라, 2013; Barbera, Paglia, & Valsavola, 2009; Lee, 2013).

이렇듯 SNS 및 페이스북 중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국외에서는 페이스북의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국외 페이스북 척도들을 살펴보면, Cam과 Isbulan(2012)은 그들의 연구에서 Young(1988)의 인터넷 중독 검사를 수정하여 20문항의 페이스북 중독 척도(Facebook Addiction Scale: FAS)를 사용했다. Elphinston과

Noller(2011)는 호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침해와 연인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Brown (1997: Elpinston & Noller, 2011에서 재인용)이 주장한 행동중독의 요인과 Walsh, White와 McD Young(2010)에 의해 개발된 스마트폰 사용 검사를 기반으로 제작된 8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인 페이스북 침해 설문지(Facebook Intrusion Questionnaire: FIQ)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Alabi(2013)가 FASS(Facebook Addiction Symptoms Scale)를, Hormes 등(2014)이 DSM-IV TR의 알코올 갈망(Craving)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PACS를 수정하여 PACS-FB를 제작하는 등 페이스북 중독 검사도구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페이스북 중독을 측정하는 다양한 검사들이 국외에서 개발되었지만, 국외의 많은 페이스북 관련 척도들도 대부분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페이스북 중독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는 페이스북 중독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사용률이 가장 높은 SNS중 하나이고 페이스북의 과도한 사용이 대인관계 및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오윤경, 2011; Kirschner & Karpinski, 2010)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중독을 여타 SNS와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국내용 척도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의 번안과 타당화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서거(2012), 고은영 등(2014)이 페이스북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FAS를 번안하여 사용했으나 통계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번안되어 있는 BFAS의 검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Andreassen 등(2012)이 개발한 Bergan 페이스북 중독 척도(Berga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Griffiths(2005)가 논의한 6가지 중독의 특징(기분변화, 현저성, 내성, 금단, 갈등, 재발)에 기반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신뢰롭고 타당하게 페이스북 중독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척도이다(Rosenberg & Feder, 2014). 연구자들은 페이스북 중독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BFA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탐색적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내적구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Kittinger et al., 2012; Salehan & Negahban, 2013; Wilson, Fornasier, & White, 2010)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 척도, 스마트폰 중독 척도, 성격 5요인 척도와 BFAS와의 상관을 검증하여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 중독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화를 통해 페이스북 중독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자들에게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페이스북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를 위해 대전, 경상 소재 3개 대학의 재학생 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페이스북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5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세( $SD=2.21$ )이었고, 성별은 남자 234명(35.7%), 여자 420명(63.9%)이었고 성별을 밝히지 않은 인원은 2명(0.3%)이었다. 학년은 1학년 380명(57.9%), 2학년 132명(20.1%), 3학년 95명(14.5%), 4학년 47명(7.2%), 무응답이 2명(0.2%)이었다. 전공은 공학계열이 29명(4.4%), 경상계열이 49명(7.5%), 인문계열이 207명(31.6%), 예체능계열이 19명(2.9%), 자연계열이 73명(11.1%), 전공미선택자 275명(41.9%), 무응답자는 4명(0.6%)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연령은 22세( $SD=2.17$ )였으며, 성별은 남자 124명(37.8%), 여자 202명(61.6%), 무응답 2명(0.6%)으로 나타났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 211명(64.3%), 2학년 58명(17.7%), 3학년 32명(9.8%), 4학년 26명(7.9%), 학년을 밝히지 않은 인원 1명(0.3%)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또 다른 집단의 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평균연령은 21세( $SD=1.99$ )였으며, 성별은 남자 110명(33.5%), 여자 218명(66.5%)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169명(51.5%), 2학년 74명(22.6%), 3학년 63명(19.2%), 4학년 21명(6.4%), 무응답 1명(0.3%)으로 보고되었다.

## 측정도구

**한국판 대학생용 Bergan 페이스북 중독 예비 척도.**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중독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Andreassen 등(2012)이 개발한 Bergan 페이스북 중독 척도(Berga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를 번안하여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Andreassen 등(2012)의 연구에서는 행동 중독의 6개 하위요인 별로 각 3문항씩 총 18문항을 제작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전체 점수와 각 문항 간 상관을 구하여 하위 요인 별로 가장 상관이 높은 6문항을 발췌해 단일 요인 척도를 구성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항 간 차이점을 고려하고 원칙도 개발 연구에서 부족했던 심리측정적 속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더욱 타당하고 신뢰롭게 페이스북 중독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원칙도 개발 연구에서 최초 제작된 18문항을 이용하여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원칙도인 BFAS의 예비문항은 현저성, 기분변화, 내성, 금단, 갈등, 재발의 6개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매우 가끔, 5점=매우 자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페이스북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BFAS의 6개 하위 요인은 행동중독의 일반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저성이란 특정 행동이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 등을 지배하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해 생각

하거나 사용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등의 문항을 통해 현저성을 측정한다. 기분변화는 특정 행동이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종종 중독적 행동은 부정적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자신의 문제를 잊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했습니까?” 등의 문항이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내성이란 특정 행동을 통한 일정 수준의 감정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행동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로 인해 중독적 행동이 지속될수록 행동의 시간과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내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페이스북을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까?” 등이 있다. 금단은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쾌한 감정적 변화와 신체적 영향을 뜻하며, “페이스북 사용을 못하게 되어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졌습니까?”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또한 갈등이란 특정 행동이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해 나타나는 타인과의 갈등,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활동과의 갈등, 내면에서의 갈등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의 갈등을 의미하며, “페이스북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까?” 등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발은 특정 행동의 부정적 영향을 깨닫고 이를 멈추려 하나, 반복적으로 과도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며, “페이스북 사용 횟수를 줄이겠다고 결심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까?”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BFAS의 예비 문항 변안을 실시하기 전 척도의 저자에게 메일을 통해 국내 변안 및 타당화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며 척도의 변안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영미권 시민권

자로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전공자 1인이 문항을 번안한 후, 연구자 1인과 이중언어 구사자로 영미권에서 상담심리학 석사를 취득한 전공자 1인이 번안된 문항을 역번안 하였다. 원문항과 역번안 된 문항 간 의미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석사 학위를 소지한 번역 전문가 1인의 평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언어학을 전공한 국어학자 1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고,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 및 석사생 30명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를 위한 최종 18문항을 선정하였다. Andreassen 등(2012)의 연구에서 BFAS의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예비 척도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 한국형 간략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정여주, 이은아, 김동민과 조영미(2008)에 의해 개발된 간략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S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40문항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척도)를 20문항으로 축약한 것이며, 일상생활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4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항상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에서 KS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887~.909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22로 나타났다.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등(2012)이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 금단, 내성의 4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4, 10, 15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김동일 등(2012)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81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8로 나타났다.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10.**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영 등(2010)의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변안 및 타당화한 10문항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Korean version Big Five Inventory-10: KBFI-10)를 사용하였다. BFI-10은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44문항의 BFI를 축약한 것으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에 해당하는 5개 성격 요인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 하위 요인은 2문항을 포함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1점=전혀 그렇지 않음, 5점 = 항상 그런 편). 하위 요인 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높을수록 해당 성격특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 페이스북 중독 척도 타당화

를 위해 예비문항 개발,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의 순으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항 분석을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간 상관,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여 모든 예비 문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소(현재성, 내성, 기분변화, 재발, 금단, 갈등)를 확인하고 하위요소들의 교차문화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추정량(Estimator)으로는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한 최대 우도법(mlr: Robust maximum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과 사각회전(Oblimin Rotation)이 사용되었다.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한 최대 우도법(mlr)의 장점은 데이터가 다변량 정규성 가정에 위배 될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적거나 표본이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분석 가능하다는 점이다(Yuan & Bender, 2000). 이 후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예비문항의 요인구조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모형적합도 지수인 RMSEA, CFI, TLI, SRMR을 확인하였는데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SMRM은 .05이하 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08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Hu & Bentler, 1999). 또한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은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배병렬, 2011; Hu & Bentler, 1999). 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하위요인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

으며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PASW (SPSS) 21.0과 M-plus 6.12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 결 과

### 문항분석

요인분석에 앞서 각 문항 간 상관을 측정해 본 결과 다른 모든 문항과의 상관이 .3 이하인 문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KMO(Kaiser-Meyer-Olkin)값을 측정해본 결과 표본 적합도가 .922로 모든 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된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단계로서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문항의 상관관계 매트릭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X^2=4072.74, p<.0001$ ).

###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은 32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이겐벨류(Eigenvalue)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1.0)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최대 3개로 나타났다. 또한 스크리 도표를 살펴본 결과, 요인의 수가 3-4개인 지점부터 경사가 완만해지므로 요인의 수는 3개 혹은 4개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가능한 요인의 수효를 3개부터 페이스북 중독 원척도 하위

요인의 수효인 6개까지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3요인 모델부터 6요인 모델까지의 모델 적합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요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모델 적합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요인일 때, RMSEA = .088, 6요인일 때 RMSEA = .043) 요인의 가능한 구조와 결과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6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모델 적합도와 요인분석의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6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요인 수를 6개로 지정하여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 3문항, 2요인 3문항, 3요인 3문항, 4요인 3문항, 5요인이 4문항, 6요인이 2문항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 따른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전체가 .938로 좋은 내적 일치성을 보였고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역시, 1요인이 .765, 2요인이 .845, 3요인이 .916, 4요인이 .845, 5요인이 .859, 6요인이 .786으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페이스북 중독 척도와 각 하위요인의 상관은 .749에서 .864로 나타났고, 각 요인 간 상관은 .475에서 .720로 나타나 각 하위 요인이 페이스북 중독 전체를 잘 측정하면서도 각 요인별로 개별적인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에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을 나타내었다. 요인 및 문항 구성을 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각 문항의 지오민(Geomin) 요인계수를 살펴본 결과 3번 문항이 1요인과 2요인에 교차하여 나타나고 10번과 12번 문항이 2요인과 4요인에 교차하여 나타나고 있어 한 요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항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문항의 내용과 원척도의 이론적 배경(Andreassen et al.,

2012)을 고려하여 3번 문항을 1요인에, 10번 문항과 12번 문항을 4요인에 배치시켰다. 본 연구의 예비척도가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원척도에서 갈등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18번

문항(“페이스북 때문에 연인이나 가족, 친구들을 소홀히 대했습니까?”)이 본 연구에서는 금단 요인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이 고민해 보았을 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

표 1.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문항 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Geomin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요인1 (현재성)	요인2 (내성)	요인3 (기분변화)	요인4 (재발)	요인5 (금단)	요인6 (갈등)	
1	페이스북에 대해 생각하거나 사용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895	.012	.007	.006	.001	.048	.765
2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까?	.400	.042	.130	.019	.355	.193	
3	페이스북에 최근 (있었던/올라온/게시된)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까?	.394	.477	.010	.002	.022	.056	.845
4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페이스북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까?	.152	.843	.004	.003	.188	.046	
5	페이스북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까?	.063	.838	.014	.009	.055	.084	.916
6	이전과 동일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페이스북을 점점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까?	.030	.647	.081	.017	.229	.201	
7	자신의 문제를 잊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했습니까?	.004	.137	.756	.004	.003	.054	.845
8	죄책감, 불안, 무기력(무력감), 우울과 같은 감정들을 줄이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했습니까?	.023	.049	.991	.010	.011	.001	
9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줄이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했습니까?	.012	.038	.765	.012	.098	.008	.845
10	누군가 당신에게 페이스북 사용을 줄이라고 말했으나 듣지 않았습니까?	.019	.489	.052	.461	.207	.090	
11	페이스북 사용을 끊어버리려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004	.001	.010	1.706	.006	.009	.838
12	페이스북 사용 횟수를 줄이겠다고 결심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까?	.065	.604	.084	.412	.127	.083	
13	페이스북 사용을 못하게 되어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졌습니까?	.099	.297	.012	.015	.749	.084	.796
14	페이스북 사용을 못하게 되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까?	.054	.080	.040	.012	.898	.070	
15	여러 이유로 한동안 페이스북에 로그인 하지 못했을 때 불쾌했습니까?	.056	.002	.044	.009	.644	.136	.796
16	페이스북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까?	.065	.660	.045	.014	.005	.402	
17	페이스북 사용을 취미, 여가활동, 운동보다 우선시 했습니까?	.015	.419	.027	.008	.233	.419	.796
18	페이스북 때문에 연인이나 가족, 친구들을 소홀히 대했습니까?	.023	.110	.060	.000	.549	.262	

는 서구와 비교하여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연인과 같이 친밀한 타인과 자아 경계가 더욱 가깝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권수영, 2007), 페이스북으로 인해 가족 또는 중요한 주변인과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 상황 자체보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강렬한 부정적 정서에 더욱 집중하게 되며 이러한 정서가 페이스북을 못하게 되었을 때, 즉 금단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니게 되는 불안, 짜증, 불쾌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연구 절차상의 문제인지 명확히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원칙도가 의도한 요인구조를 따라 6요인 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그 요인 구조를 검증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예비척도의 6요인은 1요인 현저성 (3문항), 2요인 내성 (3문항), 3요인 기분변화 (3문항), 4요인 재발 (3문항), 5요인 금단 (3문항), 6요인 갈등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저성은 특정 행동이 개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내성은 정서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 기분변화는 특정 행동이 기분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재발은 특정 행동을 중단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 것, 금단은 특정 행동을 중단하게 되면 불쾌감이나 불편감을 경험하는 것, 갈등이란 특정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기능적, 개인적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해석 가능성을 지닌 18문항을 포함하여 6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구성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328명의 새로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6요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 은 196.856( $df=120$ ,  $p<.0001$ ), CFI=.947, TLI=.933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와 SRMR 또한 각각 .062과 0.048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므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개의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는 .474 - .724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1요인과 2요인의 상관계수는 .682( $p<.0001$ ), 1요인과 3요인 간 상관계수는 .474( $p<.0001$ ), 1요인과 4요인 간 상관계수는 .614( $p<.0001$ ), 1요인과 5요인 간 상관계수는 .553( $p<.0001$ ), 1요인과 6요인 간 상관계수는 .626( $p<.0001$ ), 2요인과 3요인은 .628( $p<.0001$ ), 2요인과 4요인은 .724( $p<.0001$ ), 2요인과 5요인 간 상관계수는 .524( $p<.0001$ ), 2요인과 6요인 간 상관계수는 .686( $p<.0001$ ), 3요인과 4요인 간 상관계수는 .561( $p<.0001$ ), 3요인과 5요인 간 상관계수는 .546( $p<.0001$ ), 3요인과 6요인 간 상관계수는 .589( $p<.0001$ ), 4요인과 5요인 간 상관계수는 .622( $p<.0001$ ), 4요인과 6요인 간 상관계수는 .724( $p<.0001$ ), 마지막으로 5요인과 6요인 간 상관계수는 .667( $p<.0001$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전체가 .944로 좋은 내적 일치성을 보였고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1요인이 .762, 2요인이 .820, 3요인이 .915, 4요인이 .839, 5요인이 .867, 6요인이 .829로 좋은 일치성을 보였

표 2.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

	요인1 (현저성)	요인2 (내성)	요인3 (기분변화)	요인4 (재발)	요인5 (금단)	요인6 (갈등)
요인1	-					
요인2	.682	-				
요인3	.474	.628	-			
요인4	.614	.724	.561	-		
요인5	.553	.524	.546	.622	-	
요인6	.626	.686	.589	.724	.667	-

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6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구조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자는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최종 6요인으로 결정하였다. 각 요인을 명명함에 있어 연구자들은 페이스북 중독 원척도를 개발한 Andreassen 등(2012)의 연구를 따라 현저성, 내성, 기분변화, 재발, 금단, 갈등으로 정하였다. 각 요인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관 대학생용 Bergan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체 65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그리고 성격 5요인 척도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선행연구(박미향 외, 2014; Kittinger et al., 2012; Salehan & Negahban, 2013; Wilson et al., 2010)에 따르면 페이스북 중독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 높고 성격 5요인 척도의 요인 중 외향성과 신경증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성실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페이스북 중독 척도는 인터넷 중독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r=.620, p<.0001$ )을, 스마트폰 중독 척도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 $r=.573, p<.0001$ )을 보였다. 또한 성격 5요인 척도의 성실성과는 부적상관( $r=-.138, p<.0001$ )을 외향성( $r=.141,$

$p<.0001$ )과 신경증( $r=.203, p<.0001$ )과는 정적상관을 보여 기존의 문헌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논 의

현재 페이스북을 과다 사용하는 국내 대학생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저조한 학업 성취, 대인관계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오윤경, 2011; 우공선, 2011), 국내에는 그들의 페이스북 중독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실정이다. 국외 연구로는 Andreassen 등(2012)이 개발한 페이스북 중독 척도가 있지만 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페이스북 사용에 대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그들의 페이스북 사용 수준과 중독 수준이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Andreassen 등(2012)이 개발한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번안하여 18개의 예비문항 선정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구조가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이러한 6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6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18문항의 대학생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척도의 각 하위 요인은 현저성(3문항), 내성(3문항), 기분변화(3문항), 재발(3문항), 금단(3문항), 그리고 갈등(3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다른 척도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페이스북 중독 척도는 기존의 연구들(박미향 등, 2014; Kittinger et al., 2012; Salehan & Negahban, 2013; Wilson et al., 2010)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 척도, 스마트폰 중독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격 5요인 척도의 외향성과 신경증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성실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여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가진다. 첫째, 국외에서 개발된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 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페이스북 중독 척도로 인해 연구의 타당성 확보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본 척도의 타당화는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중독 수준을 보다 쉽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추후 페이스북 중독 및 SNS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요인 구조가 원척도 제작자인 Andreassen 등(2012)의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구조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저성, 내성, 기분변화, 재발, 금단, 갈등의 6개 하위요인이 페이스북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원척도 개발자인 Andreassen 등(2012)과 더불어 Griffiths(2005)가 논의한 6가지 행동중독의 특징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페이스북 중독 수준을 설명할 때에도 이 6가지의 하위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를 사용하여 실제 대학 상담기관이나 교육현장에서 대학생의 페이스북 중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중독과 관련된 하위 변인들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본 척도를 통해 대학생의 페이스북 중독 수준을 명료화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중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중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척도의 사용은 페이스북 중독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페이스북 중독척도는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개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Heyman(2009)의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내재적 동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선택하며 개인은 자신의 역능과 역량을 강화시켜 중독 행동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인터넷, 성, 구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행동중독은 그 특성상 중독 대상과의 단절이나 격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독의 대상을 조절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기규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페이스북 중독 척도 또한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대학생들의 중독 정도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충동통제, 자기조절 능력 등의 내재적 역량을 강화하여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1차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페이스북 중독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그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으므로 페이스북을 충동적이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문제를 겪는 영역을 확인하여 해당 영역에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2차 예방 측면에 또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모든 중독의 치료와 재활의 복잡한 과정에서 중독에 대한 수량적 평가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여겨지므로 페이스북 중독 척도는 현재 페이스북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치료와 재활의 과정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한국판 대학생용 Bergan 페이스북 중독 척도는 국내 대학생들이 페이스북이라는 매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충동성과 강박성을 나타내는 중독행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파악하고, 페이스북에 대해 중독적 특징을 보이는 대학생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형식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실제 대학생들이 어떻게 페이스북을 사용하는지, 또한 그들의 중독 상태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 반복적 경험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은 페이스북 중독 척도를 타당화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변인들이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중

독 수준에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 이 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성별, 나이, 사용 패턴 등에 따른 페이스북 중독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페이스북 중독은 비단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의 중독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보인다. SNS 사용률(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b)을 보면 30~50대 연령의 증가폭이 10% 가량으로 전반적인 성인 연령층의 페이스북 사용량의 증가가 돋보인다. 하지만 본 척도는 대학생의 페이스북 중독 정도를 반영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인용 페이스북 중독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이용자가 선호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며 그에 따라 중독의 대상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정도가 유사하지만 페이스북 상에서 중독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가 다를 경우 중독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최근 SN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특수성과 구체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추후 연구들을 통해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SNS 중독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은영, 최윤영, 최민영, 박성화, 서영석 (2014). 외로움, 대인 민감 및 페이스북 중독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13-738.
- 권수영 (2007).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파주: 살림.
- 김동일, 정여주, 이은아, 김동민, 조영미. (2008). 아동, 청소년상담: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9(4), 1703-1722.
- 김동일, 정연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 남지은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김선미, 서경현 (2015).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 김선영, 김재민, 유준안, 배경열, 김성완, 양수진, ... 윤진상 (2010). 노인에서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의 표준화 및 타당도. *생물정신의학*, 17(1), 15-25.
- 김지연, 심혜원 (2016). 불안정 성인애착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2), 73-100.
- 김형수 (2014).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지향성과 SNS 몰입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11-26.
- 김희연, 오주현 (2012). 국내외 SNS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 *방송통신정책*, 24(12), 19-42.
- 박미향, 김정숙, 함경애 (2014). 대학생의 성격 5 요인과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2), 189-206.
- 박순주, 권민아, 백민주, 한나라 (20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289-297.
- 배병렬 (201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겨 (2012). 페이스북(Facebook) 이용 중독이 대학생의 사회성 및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보경 (2014). 성인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폰 이용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305-317.
- 서원진, 김미리혜, 김정호, Ebesutani, C., 조인성 (2015). 외로움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497-512.
- 오윤경 (2011).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우공선 (2011). 네트워크 서비스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 총족과 중독 연구: 트위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현숙 (2012). 사회불안 및 페이스북 이용동기가 SNS 중독과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상호, 고아라 (2013). 소셜미디어 중독의 영향 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57(6), 176-210.
-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63-8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a). 2015년 미디어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b).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5). *국제통계연감*.
- 홍신영 (2015). 대학생의 SNS 이용특성과 자아정체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유선 (2015). 페이스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이론*, 11(3), 133-175.
- Alabi, O. F. (2013). A survey of Facebook addiction level among selected Nigerian University undergraduates. *New Media and Mass Communication*, 10, 70-80.
- Andreassen, C. S. (2015). Online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 A comprehensive review. *Current Addiction Reports*, 2(2), 175-184.

- Andreassen, C. S., Torsheim, T., Brunborg, G. S., & Pallesen, S. (2012). Development of a Facebook addiction scale 1, 2. *Psychological reports, 110*(2), 501-517.
- Andreassen, C. S., & Pallesen, S. (2013). Facebook Addiction: A reply Griffiths(2012). *Psychological Reports: Mental & Physical Health, 113*(3), 899-902.
- Andreassen, C. S., & Pallesen, S. (2014).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an overview. *Current pharmaceutical design, 20*(25), 4053-4061.
- Barbera, D., Paglia, P., & Valsavola, R. (2009). *Annual Review of Cybertherapy and Telemedicine, 7*, 33-36.
- Cam, E., & Isbulan, O. (2012). A New Addiction for Teacher Candidates: Social Networks.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1*(3), 14-19.
- Elphinston, R. A., & Noller, P. (2011). Time to face it! Facebook intrusion and the implications for romantic jealous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11), 631-635.
- Griffiths, M. (2005). A 'components'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10*(4), 191-197.
- Griffiths, M. D. (2010a). Gaming in social networking sites: a growing concern?. *World Online Gambling Law Report, 9*(5), 12-13.
- Griffiths, M. D. (2010b). The role of context in online gaming excess and addiction: Some case study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8*(1), 119-125.
- Griffiths, M. D., & Parke, J. (2010). Adolescent gambling on the Internet: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2*(1), 59-75.
- Heyman, G. M. (2009). *Addiction: A disorder of cho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rmes, J. M., Kearns, B., & Timko, C. A. (2014). Craving Facebook? Behavioral addiction to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its association with emotion regulation deficits. *Addiction, 109*(12), 2079-2088.
- Hu, L., & Bentler, P. M. (1999). Cut 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irschner, P. A., & Karpinski, A. C. (2010). Facebook® and academic performa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6), 1237-1245.
- Kittinger, R., Correia, C. J., & Irons, J. G. (2012). Relationship between Facebook use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6), 324-327.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Lee, S. J. (2013).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Traits, Gratification and Social Networking Sites Addiction: Focusing on Facebook Us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1*(4), 17-39.
- Rosenberg, P. K., & Feder, C. L. (2014). 행동중독(신성만 역). 서울: 박학사.
- Ryan, T., Chester, A., Reece, J., & Xenos, S. (2014). The uses and abuses of Facebook: A review of Facebook addiction.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3*(3), 133-148.
- Salehan, M., & Negahban, A. (2013). Social networking on smartphones: When mobile phones become addi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6), 2632-2639.

- Walsh, S. P., White, K. M., & Young, R. M. (2010). Needing to connect: The effect of self and others on young people's involvement with their mobile phone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2*(4), 194-203.
- Wilson, K., Fornasier, S., & White, K. M. (2010). Psychological predictors of young adult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2), 173-177.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UK: John Wiley & Sons.
- Yu, S., Hsu, W., Yu, M., & Hsu, H. (2012). Is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Correlated with Internet Addiction? Facebook Use among Taiwanese College Students.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68*, 1659-1661.
- Yuan, K. H., & Bender, P. M. (2000). On equivariance and invariance of standard errors in three exploratory factor models. *Psychometrika, 65*, 121-133.

원고접수일: 2016년 7월 4일

논문심사일: 2016년 7월 8일

게재결정일: 2016년 11월 5일

# Validation of the Bergan Facebook Addiction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Version

Sung-Man Shin      Jae-Young Kim      Young-An Ra  
Handong Glob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Bergan Facebook Addiction Scale'. The aim of validating the scale was to measure Korean college students' levels of Facebook addiction. After item analysis, all 18 items of the Bergan Facebook Addiction Scale were kept for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six-factor model (i.e., salience, tolerance, mood, relapse, withdraw, and conflict) was the best structure. These results supported the goodness-of-fit of the model. The criterion validity was verified by making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an Internet Addiction scale, Smart phone Addiction scale, and Big Five Personality Test. The reliability of the model was also supported, thus we found that a six-factor model of the scale was an acceptable measuring tool to assess Korean college students' levels of Facebook addiction. At the end, we offere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Facebook addiction, SNS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scale validation